

진행된 구강암에서 전설절제술의 의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¹⁾

노영수 · 전진형 · 조형주 · 박준영 · 정철훈¹⁾ · 오석준¹⁾

배경 및 목적: 구강암에서 설부, 구강저, 혹은 설기저부의 광범위한 침범은 수술적 치료시 전설절제술(total glossectomy)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두 전적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 절제술은 술 후에 연하 장애나 흡인 등의 심각한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행된 병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치료 시에도 예후가 불량하다. 이런 관점에서 전설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의 범위와 재건법에 따른 기능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치유율 등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전설절제술을 시행받았던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술 후의 기능적 장애 정도와 병기별로 평균생존률과 무병생존률을 알아보았다.

결 과: 남녀 비율은 4 : 7 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6.5세였다. 설암 7명(63%), 설기저부암 3명(27%), 구강저암 1명(10%)로 병리학적으로 10례에서 편평세포암 이었으며 나머지 1례는 선양낭성암종(adenocystic ca.)이었다. 병기별로는 stage II 3명(27%), stage III 1명(9%), stage IV A 6명(54.5%), stage IVB 1명(9%)이며 이중 4명은 모두 부분설절제술후 국소재발되어 전설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설

부의 재건은 전완유리피판 2례, 비골유리피판 2례, 대흉근 피판 3례, 광배근근피판의 단독 사용 1례였고, 이중 3례에서 비골유리피판, 광배근 유리피판 혹은 견갑골 유리피판 등을 동시에 이용한 이중유리피판으로 재건하였다.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두를 보존하였고 이 경우 3례에서는 정도의 흡인은 있었지만 정상식이 가능하였고 6례에서는 중등도의 흡인을 호소하였고 유동식 정도의 섭취만 가능하였다. 1례에서 8년간 무병생존해 있고, 다른 1례는 수술 직후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9례의 평균생존률은 17.1개월 이었으며 전체 평균생존률은 22.7개월이었다.

결 론: 진행된 구강암 환자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단 당시의 병기이다. stage III, IV의 5년 생존률은 40~5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설기의 발달 및 방사선 병합요법 등의 발달로 생존률이 작은 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진행된 병변이나 원발암의 재발로 인하여 전설절제술 등의 광범위한 절제는 술 후의 심각한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예후 또한 불량하였다. 이에 치료법의 결정에 환자의 삶의 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결국 구강암은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